

# 환경산업 범정부적으로 육성

이병욱 환경차관, 2012년 세계시장 점유율 7%로 확대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해 현재 3.3%인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7%까지 끌어올리고 환경산업 수출액도 1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병욱 차관은 3월2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안전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환경·경제의 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강연을 통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패키지형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환경설비를 포함해 환경설비와 해외 천연자원의 현물교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산업의 지원을 위해 유망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투자하고 환경시설공사를 위한 특화된 발주체계를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사업자의 전문화, 광역화와 지원법 제정,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물 전문기업을 육성키로 했다고 소개하고 대기업들도 물산업 진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욱 차관은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6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한다는 정부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수원 상류공장의 입지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27>